반려동물 천만 시대, '언더독'이 던지는 돌직구

2011년 '마당을 나온 암탉'을 통해 양계장의 문제점을 꼬집은 제작진이 8년 만에 돌아왔다. 이번엔 '언더독'을 통해 유기견에 대한 문제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언더독'은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뀐 강아지 '뭉치'가 개성 강한 거리의 견공들과 함께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 떠나는 모험을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뭉치는 주인의 차에 실려 산 중에 버려진다. 아무 것도 모른 채 주인이 던진 공을 물어 오기 위해 내달린 사이 뭉치의 주인은 매정히 차를 끌고 산을 내려가 버린다. 뒤늦게 주인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열심히 내달리지만 결국 주인을 쫓아가지 못하고 주인의 마지막 명령 '기다려'를 떠올리고 자신이 버려진 자리로 돌아온다. 뭉치는 하루가 지난 뒤 자신이 버려진 장소에서 또 다른 강아지가 버려진 것을 목격한 뒤에야 자신이 버리진 사실을 받아들인다.

유기견에 대한 문제점 전면에 내세워

국내 기준 한 해 버려지는 유기 반려 동물은 10만여 마리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입양을 결정했다가 유기하는 경우가 대부분. 애니메이션은 뭉치의 여정을 통해서 유기견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뭉치의 주인 역시도 단지 귀엽다는 이유로 뭉치를 입양했다가 너무 커버린 뭉치를 무책임하게 산에 버린다. 더구나 뭉치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는 짖을 때마다 전기가 흘려 강아지가 짖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달려 있다.

이렇게 주인에게 길러진 반려견이 길거리에 내동댕이쳐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보여준다. 이미 거리 생활에 익숙해진 견공들과 함께 뭉치는 가게 앞에서 음식을 얻어 먹으며 길거리 생활을 연명한다. 그런 가운데 뭉치는 하루 차이로 버려진 견공이 죽자 그 동안 애지중지 했던 공을 버리고 우연히 만나게 된 들개와 합류를 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사냥꾼이 등장하면서 다시 한 번 뭉치는 위기를 맞는다. 사냥꾼과 뭉치, 밤이의 대결 과정에서 국내의 반려견 산업의 민낯이 그대로 등장한다. 사냥꾼이 운영하는 개 농장, 들개를 무차별하게 사냥을 하는 모습, 이를 피해 도망가던 중 로드킬을 당하는 모습까지. 인간의 추악한 욕심이 낳은 반려견이 처할 수 있는 수많은 위험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한다.

수 많은 역경 속에서 유기견들은 주인에게 종속된 삶이 아닌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향한다. 뭉치와 견공들의 모험을 쫓다 보면 어느 순간 관객 역시도 이들의 주체적인 삶을 응원하게 된다.

애니메이션은 반려견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겁게만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는다. 뭉치를 비롯한 밤이, 짱아, 개코, 토리, 아리, 까리 등 개성 강한 견공이 등장한다. 특히 짱아는 목소리 연기를 한 박철민의 특유 넉살이 더해져 유쾌한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

'언더독'은 할리우드 스튜디오 애니메이션에서 주로 사용하는 '선녹음-후작화' 방식을 진행해 더욱 안정적인 더빙 싱크로율을 자랑한다. 도경수의 진중하면서도 묵직한 목소리가 뭉치의 분위기와 조화를 이룬다. 밤이의 목소리 연기를 한 박소담 역시도 카리스마 넘치는 밤이의 분위기를 잘 살려 냈다. 여기에 MBC 라디오 '싱글벙글쇼'의 DJ 강석을 비롯해 연지원, 전숙경 박중금 등 국내 명품 성우진들이 총출동해 완벽한 목소리 연기로 관객의 몰입도를 높인다.

오성윤 감독은 '언더독'을 두고 아이도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평했다. 그의 말처럼 성인 관객에게는 반려견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를, 아이 관객에게는 유쾌한 견공들의 모험담을 전하는 전 세대가 공감할 그런 애니메이션이다.

'왕이 된 남자' 걸작 사극 탄생…역대 첫방 시청률 1위

'왕이 된 남자'가 시청자들의 시선을 송두리째 휘어잡았다.

tvN '왕이 된 남자'는 1회 시청률에서 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플랫폼 가구 평균 5.7%, 최고 7.5%를 기록, 케이블 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역대 tvN 월화 드라마 첫방 최고 시청률을 경신한 기록이다. 뿐만 아니라 tvN 타깃(남녀2049) 시청률에서는 평균 3.3% 최고 4.7%를 기록,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며 새로운 월화 강자의 탄생을 알렸다. (유료플랫폼 전국 기준/ 닐슨코리아 제공)

지난 7일 첫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왕이 된 남자'(극본 김선덕/ 연출 김희원/ 제작 스튜디오 드래곤) 1회에서는 똑같은 얼굴을 했지만 극과 극의 신분을 지닌 두 남자, 광대 하선(여진구 분)과 폭군 이헌(여진구 분)이 대면하며 조선을 뒤흔들 광대놀음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방송에서는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극과 극의 인생을 살고 있는 하선과 이헌의 모습이 대비되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서자 태생인 왕세자 이헌은 부왕(장혁 분)의 핍박 속에서 힘겹게 자리를 지키다 부왕의 승하와 함께 보위에 올랐다. 이후 이헌은 간신 신치수(권해효 분)를 앞세워 용상을 위협하는 인물들을 척결, 결국엔 아우 경인대군(이주원 분)의 목숨까지 비정하게 빼앗았다.

이렇듯 조정에 피 바람을 몰고 오며 용상을 지켜낸 이헌은 되려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간신배인 줄 알면서도 신치수의 손은 차마 놓을 수 없었고, 중전 소운(이세영 분)과의 불화는 갈수록 깊어졌으며, 언제 어디서 누가 자신을 암살할지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점점 병들어간 것. 온양행궁에서 실제로 자객의 습격까지 받은 이헌의 불안은 극으로 치달았고 그는 도승지 이규(김상경 분)에게 자신을 지킬 방도를 찾아내리며 울부짖었다.

반면 하선은 세상에 거칠 것이 없는 광대. 그는 만석꾼 김진사(유형관 분)의 집에서 흥겨운 판을 벌이지만 나라님을 가지고 놀았다는 핑계로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났다. 이에 발끈한 하선은 김진사댁 장독을 모조리 박살내는 소소한 복수를 감행한 뒤 기왕이면 큰 판에서 놀아 보자며 광대패를 이끌고 한양으로 와 새로운 판을 벌였다.

이윽고 결정적인 만남이 이뤄졌다. 기루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이규가 광대놀음을 하고 있는 하선을 발견한 것. 이규는 임금과 똑같은 얼굴과 음성을 한 하선에게 놀랍도 잠시, 그를 이헌의 대역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궁으로 돌아간 이규는 이헌에게 방도를 찾았다고 언질을 했고 야음을 틈타 하선을 궁으로 들여 이헌 앞에 대령했다.

하선과 이헌은 쌍둥이처럼 닮은 서로의 모습에 경악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두려워하는 하선에게 이헌은 다짜고자 익선관을 씌웠다.

이어 곤룡포까지 입힌 이헌은 하선의 태를 찬찬히 훑어 본 뒤 "이놈 해보거라"라고 시켰다. 하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었다. 잔뜩 주눅이 든 하선이 변변치 않은 소리를 내자 이헌은 "이놈! 제대로 놀지 못하겠느냐!"라며 불호령을 내렸다. 순간 하선은 "이놈! 제대로 놀지 못하겠느냐!"라고 힘을 주어 소리쳤고, 마치 진짜 왕의 음성 같은 하선의 외침에 이헌은 희열 섞인 웃음을 토해내 시청자들을 전율케 했다. 이에 두 용안의 만남으로 막이 오른 파란의 역사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감이 수직 상승한다.

이처럼 '왕이 된 남자'는 양 극단에 서 있는 두 인물 하선과 이헌의 스토리를 하나의 점으로 수렴시키며 한 시간 내내 숨막히는 몰입도를 자아냈다. 이와 함께 여진구-이세영-김상경-정혜영(운심 역)-장광(조내관 역)-권해효-장영남(대비 역)도 탄탄한 연기내공으로 보는 재미를 한껏 끌어올렸다. 특히 서슬 퍼런 독기 속에 처연함을 담은 '폭군 이헌'과 거침없고 유쾌하면서도 허당 매력을 지닌 '광대 하선'을 오가는 여진구의 1인 2역은 그야말로 일품이었다.

무엇보다 김희원 감독은 압도적인 미장센으로 대중의 기대치를 또 다시 뛰어넘었다. 피비린내 나는 정쟁을 한층 비극적으로 그려내는 타이트한 앵글,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다이나믹한 광대놀음 시퀀스 등은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했다. 특히 광대 여진구와 폭군 여진구가 마치 거울을 보듯 마주보고 있던 엔딩 씬은 시청자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각인되며, 사극의 새 역사를 쓸 걸작의 탄생을 알렸다.

韓힙합신의 빌보드 입성 서바이벌 예능 '킬빌' 31일 첫방

MBC가 오는 31일부터 선보이는 '킬빌'은 '쇼미더머니' '고등래퍼' '슈퍼스타K' '언프리티랩스타' 작가진들이 총 집합해 탄생시키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다. 대한민국 힙합신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초호화 라인업으로 빌보드 차트 점령을 목표로 한다.

'킬빌'은 지난해 출연 아티스트 라인업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서바이벌 끝판왕의 탄생'을 알렸다. 재치 넘치는 예능감으로 각종 음악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김종국의 진행 아래 독보적인 존재감의 1세대 힙합 레전드 '양동근'부터 대한민국 힙합 레이블의 수장 '도끼', 강렬한 래핑의 힙합 여전사 '제시', 센스 만점 음원 깡패 '산이', 감성 자극 걸크러시 래퍼 '치타', 퍼펙트 팀워크의 전천후 힙합그룹 '리듬파워', 독보적인 괴물래퍼 '비와이'까지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힙합신들이 총출동하는 것.

'킬빌'은 지난해 출연 아티스트 라인업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서바이벌 끝판왕의 탄생'을 알렸다. 재치 넘치는 예능감으로 각종 음악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김종국의 진행 아래 독보적인 존재감의 1세대 힙합 레전드 '양동근'부터 대한민국 힙합 레이블의 수장 '도끼', 강렬한 래핑의 힙합 여전사 '제시', 센스 만점 음원 깡패 '산이', 감성 자극 걸크러시 래퍼 '치타', 퍼펙트 팀워크의 전천후 힙합그룹 '리듬파워', 독보적인 괴물래퍼 '비와이'까지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힙합신들이 총출동하는 것.

국내 최초, 빌보드 점령을 위한 국내 최정상 힙합신들의 배틀이 펼쳐질 MBC '킬빌(Target : Billboard - KILL BILL)'이 정규 편성된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미(美)친 라인업'을 완성한 아티스트 7팀은 매주 기존곡과 신곡으로 무대를 꾸리며 세기의 힙합 배틀을 시작, 상상만 했던 힙합계 레전드들의 일대일 빅매치를 '킬빌'에서 현실화한다.

피 튀기는 경연에서 살아남은 최종 우승팀은 빌보드 제왕 DJ 칼리드(DJ Khaled)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힙합의 본토 미국을 점령에 나설 예정이다. 릴 웨인, 핏불, 스눕독, 저스틴비버, 리한나, 크리스브라운 등의 세계적인 스타들과 작업하며 전세계 힙합신을 정복한 DJ 칼리드와 대한민국 힙합계의 끝판왕의 역대급 만남은 벌써부터 힙합러버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있다.

과연 전무후무 월드와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행에 오를 최후의 아티스트는 누가될지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는 가운데 DJ 칼리드 역시 어떤 아티스트가 자신과 협업하기 위해 미국에 올지 고대하고 있다는 제작진의 전언이다.

이처럼 '빌보드 핫 100' 입성을 향한 국내 거물급 아티스트들의 무대는 오감 만족은 물론 소름 돋는 반전까지 선사, 보는 이들의 힙합 세포를 일깨울 역대급 배틀에 대해 관심을 폭발시키고 있다.

한편 사전제작으로 진행된 '킬빌'은 첫 방송을 앞두고 아티스트 7팀의 첫 경연 무대영상을 선공개해 7인7색의 역대급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날 첫 방송을 시작으로 총 10회에 걸쳐 방송되며 2월 중에 MBC PLUS의 MBC 뮤직, 에브리원, 드라마 채널에서도 방송된다.

오늘의 운세 2019년 1월 9일 수요일 (음력 12월 4일)

▶쥐띠 지금 주어진 환경이 고생스럽더라도 지레짐작해 포기하면 훗날 크게 후회한다. 행운 방향은 동쪽이다. 감정이 풍부하고 감성에 잘 젖는 2, 3, 7월생은 그곳에서 만난 ㄱ, ㅅ, ㅈ 성씨가 훗날 도움을 줄 테니 이번엔 그의 부탁을 들어줄 것.

▶소띠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실수가 도사리기 마련이다. 상황을 너무 쉽게 파악하고, 무조건 전진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7, 11, 12월생은 흑백을 잘 판단할 것. 공정하게 본분을 다하면 결실하겠다. 서쪽을 유의하라.

▶호랑이띠 7월생 여자는 짝사랑을 그만두라. 상대 남자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기술직, 제조업 종사자는 변동해서 하는 일이 힘겹다고 주저하지 말라. 쥐, 토끼, 말띠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하니 잘 활용하라.

▶토끼띠 유흥이나 오락으로 보내는 날이 되기 쉬워 지출이 늘겠다. ㄱ, ㅅ, ㅈ 성씨는 금전 운이 따르므로 돈 걱정 없다. 사교가 확대하는 경향이지만, 귀인은 남쪽에 있으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성에게 깊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

▶용띠 목표가 너무 원대하면 매사가 엉킨다.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주위와 조화를 이룰 때 성과가 생긴다. 조급하게 추진하지 말라. 1, 4, 9월생 여자는 한 사람으로 만족하라. 마음속 탐심은 겉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뱀띠 감정대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된다. 3, 4, 8월생 남자는 순간적으로 욱하는 성질이 가정 평화를 깨니 주의하라. 오늘 서북쪽으로 가지 말라. 손재수가 우려된다. 목전의 문제가 아무리 급해도 기다리라. 도매업은 수익을 올리는 날이다.

▶말띠 엄격하게 행동하되 부드러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위와 협조할 수 있으면 운기도 호전한다. ㄱ, ㅅ, ㅊ 성씨와 성의 있게 대화하라. 권위나 힘을 과시하면 아랫사람이 저항한다. 실력을 잘 활용하자. 동쪽 길.

▶양띠 그간의 정체에서 벗어나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실력을 강화하고, 한눈팔지 않을 때 좋은 결과가 있겠다. 1, 3, 9월생은 이제까지의 고생이 오늘 효과를 본다. 지금이야말로 내 재주와 역량을 발휘할 때.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긴다.

▶원숭이띠 시야가 좁으면 사람을 잘못 판단하기 쉽다. 지금까지 쌓은 신뢰를 한순간에 박탈당할 수 있다. 직선적인 말과 행동을 자제하라. ㄱ, ㅂ, ㅍ 성씨는 남의 사랑을 내 가슴에 품으면 품을수록 불행만 자초할 수. 불필요한 정에 얽매이지 말라.

▶닭띠 공연히 서두르다가 실패만 하니 침착할 것. 만사가 순탄하더라도 지나친 욕심이 일을 그르친다. 매매 계약은 충분히 검토할 것. 동갑 인연과 충돌 주의. 상대의 신경이 예민해 있으니 배려함이 좋겠다. 1, 2, 3월생에게 검은색은 흉.

▶개띠 ㄱ, ㅅ, ㅍ 성씨 남성은 여성을 대할 때 항상 처음과 같지 않아 상대가 불만을 품는다. 그것을 모르고 떠나는 여성들로 인해 괜히 콤플렉스가 생길 수 있다. 2, 5월생은 애인에게 늘 부드러운 말과 행동이 필요.

▶돼지띠 여성은 외양에 돈을 들이고 화려해지고 싶은 때나 착실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굳이 꾸미다가는 신뢰를 잃으니 소박한 태도와 성실함이 필요하다. 학술, 예술, 공무원은 향상할 운이나 투자금융업, 화학, 목제업 종사자는 평온하지 않겠다.